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rerg: 연준 오늘 금리 동결 전망…12월 금리 힌트주나
- Bloomberg: 미 9월 상품 무역 적자, 1년 반 만에 최대 폭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국채 금리, FOMC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
- WSJ: AI 투자 관련 기업 대출 급증…은행권은 신중론

[물류]
- WSJ: LA·롱비치 항구 파업 위기…연말 물류 차질 우려

[중동 전쟁]
- WSJ: 미군 당국,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자제 권고

[오일]
- Bloomberg: 사우디, 다행히 석유 수출 견조

[주택]
- CNBC: 미 모기지 금리 2주 연속 하락…대출 수요도 급증

[글로벌 경제]
- Reuters: 세계은행,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 23% 급등 전망
- Bloomberg: 중국 공식적인 성장 수치에 회의론 확산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Expected to Hold Rates With Nod to December: Decision-Day Guide
연준 오늘 금리 동결 전망…12월은 궁금

- 연준이 9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지만, 오늘 수요일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
- 지난달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동결 배경을 설명하라는 시장의 요구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- 워시 의장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결정 이유와 함께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및 물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 12월 금리 정책에 힌트를 줄지 주목된다.

기사

Bloomberg: US Trade Gap Jumps to Most Since March 2025 on Capital Goods
미 9월 상품 무역 적자, 1년 반 만에 최대 폭

- 미국의 9월 상품무역 적자가 자본재 수입 증가 여파로 3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2025년 3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.
-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상품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2.1% 늘어난 1천3백49억 달러를 기록해,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. 원래 수익 액수가 큰데, 9월에 수입은 2.4%, 수출은 2.6% 각각 증가했다.
- 특히 인공지능 투자를 견인하는 컴퓨터, 반도체, 통신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7.5%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였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tick higher ahead of Federal Reserve interest rate decision
미 국채 금리, FOMC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

- 연준의 오늘 수요일 오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.
- 10년물 금리는 2bp 이상 오른 5.0134%, 2년물 금리는 1bp 오른 4.7494%를 기록했다. 30년물 금리 역시 5.3200%로 소폭 올랐다.
- 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(3.75%~4.00%)으로 동결할 확률을 90.6%로 보고 있다.

기사

WSJ: AI Boom Drives a Jump in Lending, but Bankers Still Sound Cautious
AI 투자 관련 기업 대출 급증…은행권은 신중론

-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때문에 미국 주요 은행들의 기업 대출이 급증했으나, 금융권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- 연준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상위 25개 은행의 비즈니스 대출(C&I loans: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)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% 늘었다. 주요 은행들은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.
-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은행 경영진들은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신중한 위험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.

기사

[물류]

WSJ: Southern California Ports Face Strike Threat
LA·롱비치 항구 파업 위기…연말 물류 차질 우려

- 미국 최대 LA·롱비치 항구의 안전 보안 노조(250명)가 파업을 결의하며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셧다운 위험에 처했다.
- 전체 노조의 2%에 불과하지만 화물의 50% 이상을 담당하며, 13개 터미널 중 6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-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시점의 파업은 물동량 폭증으로 노조의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것. 9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24% 급증한 105만 개 컨테이너(20피트 길이)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US Tells Ships to Avoid Unnecessary Transits Through Hormuz
미군 당국,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자제 권고

- 미군 당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에 불필요한 통행 자제를 권고했다.
- 오늘 수요일 미 중앙사령부는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간 주요 항구를 통과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민간 선박은 해당 수역 접근을 우회·자제할 것을 권고했다.
- 해당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상 혼잡도 증가 및 군사적 봉쇄 집행 작전에 대비해 운항에 신중하라고 권고했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Saudi Arabia’s Oil Exports Are Booming Despite Wave of Attacks
사우디, 다행히 석유 수출 견조

- 에너지 시설 피격과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 피격에도 불구하고, 사우디의 석유 수출량이 전시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페르시아만 지역 전체의 석유 수출도 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다. 물론 데이터가 아직 정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.
- 최근 공항 및 석유 시설 피격으로 항공 운항 차질 등 경제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, 이번 긍정적인 원유 수출 실적은 사우디 국익과 재정 방어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.

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rates fell for the second straight week, but more borrowers still sought savings in riskier loans
미 모기지 금리 2주 연속 하락…대출 수요도 급증

-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7.37%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체 대출 신청 수치가 전주 대비 3.4% 증가했다.
- 물론 주택 구입용 대출은 4% 반등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18% 저조한 수준이다.
- 지속되는 고금리 부담에 더 낮은 금리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, 위험도가 높지만 초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모기지(ARM: Adjustable-Rate Mortgage) 신청 비중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1.3%까지 치솟았다.

기사

[글로벌 경제]

Reuters: World Bank sees commodity prices up 23% in 2026 due to Middle East war, other shocks
세계은행,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 23% 급등 전망

- 지속적인 중동 전쟁과 공급망 차단 여파로 올해 세계 원자재 가격이 23% 급등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다.
- 수요일 이 기관의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운송 차질, 그리고 흑해 곡물 수송 문제, 안전자산(금) 수요 폭증이 맞물려 원자재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렸다.
-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가격이 추가 상승하고, 엘니뇨 등 기후 악재로 식량 위기도 커질 수 있다는 것.

기사

Bloomberg: China Claims Strong Economic Growth, but Skeptics Question Official Figures
중국 공식적인 성장 수치에 회의론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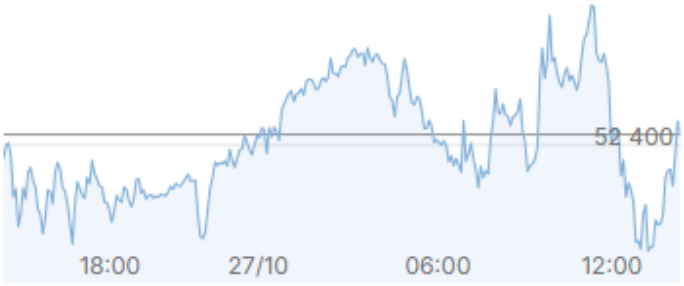
- 중국 정부가 3분기 경제성장률을 4.5%, 9월 실업률을 5.2%로 발표하며 견조한 성장이라고 주장했다.
- 그러나 외신과 서구 경제학자들은 실제 전반적 성장률을 0~3%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한마디로 통계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- 부동산 시장 폭락과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금융 데이터 접근 제한과 부정적 언론 통제가 통계와 현실 간 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후티 반군이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 라스 타누라를 공격했으나 사우디 연합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.
- 이집트 의회가 35년 만의 사우디 군사지원을 승인하자 후티 측은 이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.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강조하며 규정 위반 유조선의 기뢰 충돌 화재를 발표하는 한편, 해당 수역 원유 수송의 37%를 맡은 한국 장금상선에 11월 1일 자 법적 조치 및 억류·몰수를 경고했다.
- 카타르의 해협 재개방 촉구 속에 미 중앙사령부(CENTCOM)는 해협 포기설을 일축했다. 국제유가는 평화협상 기대감에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5달러 아래로 이틀 연속 하락했으나 공급 우려는 여전하며,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논의와 부산항 운임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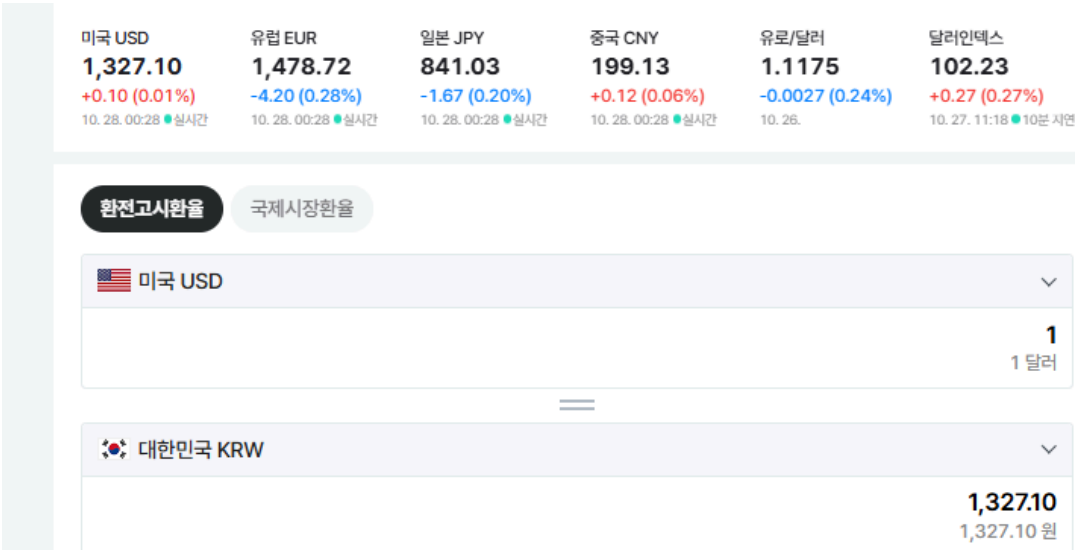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417.40	+53.4	+0.10%
US 500	7,720.50	+43.6	+0.57%
Dow Jones	52,424.51	+62.93	+0.12%
S&P 500	7,720.54	+43.77	+0.57%
Nasdaq	26,445.96	+276.58	+1.06%
S&P 500 VIX	17.58	-0.81	-4.40%
Dollar Index	102.08	+0.280	+0.28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1/32	5.309	0.005
10-Year Note	4.625	0/32	4.995	0.003
7-Year Note	5	0/32	4.905	0.003
5-Year Note	5	0/32	4.834	0.002
3-Year Note	4.875	0/32	4.796	0.009
2-Year Note	4.625	-18/32	4.729	0.020
1-Year Bill	0	0/32	4.465	0.015
6-Month Bill	0	0/32	4.361	0.013
3-Month Bill	0	0/32	4.138	0.012
1-Month Bill	0	0/32	4.012	0.000

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